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6월 7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조선해양플랜트과 최규종 과장(044-203-4330), 민경미 사무관(4334)

세계 1등 조선강국과 해운강국의 만남

- 한-그리스 조선-해운장관 회담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그리스 해운부 바르비치오티스(Miltiadis Varvitsiotis) 장관은 6. 6. (금) 10시부터 그리스 해운부 청사에서 제2차 조선·해운 장관회담을 개최하고, 양국 조선·해운 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함.

○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스 해운부는 조선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양국의 조선·기자재 업계가 협력포럼을 개최함.

○ 윤상직 장관의 그리스 방문 목적은 지난해 파풀리아스(Karolos Papoulias) 그리스 대통령 방한('13. 12.) 이후 촉진된 양국 조선·해운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면서, 아울러 올 2월 방한한 바르비치오티스 장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짐.

□ 그리스는 '14년 현재 4,894척, 2억 9천 1백만 재화톤수(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을 표시하는 수)의 선박을 보유한 세계 1위의 해운 강국이며, 선단 가치는 전 세계 6,596억 불 가운데 1,010억 불을 차지함.

○ 또한 한국에 대한 선박 발주량이 연간 약 20~30%에 달하는 한국 최대의 발주국임.

□ 회담에서 윤상직 장관은 세계 1위 해운 강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한국의 조선·해운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, 그리스의 지속적인 선박 발주를 당부함.

○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스 해운부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선기술분야에서 양국의 교류, 협력을 더욱 증진해나가는 노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함.

○ 특히 양국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조선업계와 그리스 기자재 업계가 협력 포럼*을 개최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음

* 한국 5개 주요조선사와 그리스 15개 해운/기자재 업계가 정보교류 및 협력 논의

□ 한편 윤상직 장관의 그리스 방문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조선-해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,

○ 6. 6. (금) 무역보험공사와 그리스 해양플랜트 발주선사가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.

□ 이번 그리스 방문을 통해 윤상직 장관은 "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조선-해운 협력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"이라고 강조하고,

○ 두 나라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코마린(KORMARINE)에 바르비치오티스 장관을 초청함.

*코마린(KORMARINE): 국제 조선, 해양산업전으로 조성과 해양플랜트, 그린해양 산업을 포괄하는 해양종합전시회로 2년에 한번 개최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민경미 사무관(☎ 044-203-43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